

사회

고유가 시대 출퇴근 신평속도

자전거·지하철 이용 급증

광주지역의 휘발유 1ℓ 당 가격이 2000원대에 육박하는 등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자출족(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값싼 기름을 넣기 위한 ‘원정 주유’도 직장인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 셀프 주유소에는 운전자들이 쇄도하고 있으며, 기름값을 끈족 할인하는 신용카드 가입고객도 폭증하고 있다.

▷자전거·대중교통 인기=14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광주시의 휘발유와 경유 1ℓ 당 평균 가격은 각각 1937.24원과 1748.85원으로, 전국 평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8년 7월의 1950.02원에 근접하고 있다.

기름값에 부담을 느낀 직장인들

“조금이라도 절약하자” 셀프주유소 문전성시

은 자출족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자전거 동호회인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신규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동호회의 광주·전남지역 운영 스태프인 박동수(40)씨는 “올해 초까지는 하루 150여명 가량 가입하는 게 평균이었지만 2월 말 들어 하루 200명 이상으로 가입자 수가 늘었다”며 “광주의 경우 300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달 초부터 급증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박씨는 “주말에만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타던 회원들이 최근에는 출·퇴근마저 자전거로 하고 있다”며 “날씨가 점차 풀려가기 때문에 ‘자출’을 하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동호회 홈페이지의 광주·전남지역 게시판을 자전거 구입문의와 함께, 출·퇴근길 정보를 묻는 직장인들의 글로 채워지고 있다.

광주지하철 탑승객의 경우 3월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5만6338명으로, 지난달 4만8533명에 비해 16%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3월(5만3552명)에 비해서도 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셀프주유소 ‘문전성시’=광주 도심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ℓ 당 1940원대를 웃돌자 승용차 운전자들은 ‘원정 주유’를 가고 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기름을 넣기 위해 비교적 값이 저렴한 도심 외곽 지역

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또 일반 주유소보다 1ℓ 당 50원에 차이는 100원까지 저렴한 셀프주유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름값을 절약하려는 실속과 운전자들을 겨냥해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신용카드사 등은 주유 할인권과 주유 전용 신용카드 등 유가 관련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직장인 임모(35·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아무래도 도심 지역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 평소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눈여겨 봤다가 주말이면 그 주유소를 찾아가 기름을 넣는다”며 “연료를 더 아끼기 위해 1ℓ 당 100원의 기름값을 할인해준다는 신용카드까지 새로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학교 과학실 불

학생 수백명 긴급 대피

14일 낮 12시12분께 광주시 북구 모중학교 1층 과학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내부면적 55㎡ 중 10㎡를 태우고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과학실 안에 있던 일부 기자재가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불이 나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4일 발생한 광주시 북구 모중학교 1층 과학실 화재 현장. 패널 외벽이 겹겹이 그을린 채 과학교과 등 각종 기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2순환도로서 고의 사고 유발 동영상

누리꾼 “평생 면허 못따게 해야” 분노

심야시간대 광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난폭운전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인터넷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국내 한 유명 자동차소품물 홈페이지에는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지난 7일 포르테클 승용차로부터 주행 방해로 받아 사고를 낼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이 올라왔다. 총 1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다.

어두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달리던 과다속 포르테클 승용차가 2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장면으로 영상은 시작된다. 깜짝 놀란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한편 당황하는 장면이 역력했으나, 포르테클 승용차는 또다시 연달아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내 포르테클 승용차의 뒤범퍼

와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가 부딪혔고, 사고가 난 2대의 차량은 갓길에 차를 정차했다. 누가 보더라도 포르테클 승용차의 의도적 급정거로 인한 사고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히 보였다.

글과 영상을 올린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는 “수 차례 포르테클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고, 주행을 방해했다”며 “결국 3번째 방해에서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글과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만약 에쿠스 차량에 아끼라도 있었으면 어쨌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저런 운전자는 평생 면허를 딸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흥기로 동료 허벅지 찌른

40대 몽골인 불잡아 조사

영양경찰은 14일 자신과 함께 사는 동료를 흥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몽골인 H(42)씨를 상해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45분께 영암군 삼호읍 자신의 집에서 흥기로 동료 몽골인 B(42)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이날 B씨 등 같은 몽골 출신 동료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중학교 행정실 여직원 자살

업무 스트레스 받은 듯·학교장 “정수기 비리와 무관”

광주의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모 아파트에 사는 K(여·36)씨가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남편(3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경찰에서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딸(11)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봤더니, 아내가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K씨는 지난 2일 광주 한 초교에서 모 중학교 행정실장 발령받은 뒤 이곳 행정실에서 차석으로 일해왔으며, 업무 문제로 상사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라는 내용

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해당 중학교 교장은 “K씨가 우리 학교에서 근무한 지 10일 정도 됐는데, 상사와 마찰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며 “정수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K씨는 물론 학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가 최근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오후 5시40분께 북구 문흥동 모 아파트에 사는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이자 전 광주 A고 교 행정실장을 지낸 김모(56)씨가 투신자살했다.

김씨는 2003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A고 교 행정실장 재직 당시 정수기 설치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부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강진관 ‘워낭소리’

25년 고락31살 암소 죽자 장례식에 매년 제사 계획

“고마운 황순아, 함께 했던 세월 잊지 않으려나.”

25년을 동고동락한 31살짜리 암소가 죽자 장례식까지 치러주며 안타까워한 농민이 있다.

강진군 군동면 평암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신옥진(69)씨. 최근 키우던 암소 ‘황순이’가 눈을 감자 며칠째 얼수를 놓은 채 황순이의 빈 자리를 킁킁거리며 바라보고만 있었다.

지난 1987년 신씨는 강진 우시장에서 당시 6살이던 암소를 43만원에 데려왔다. 말쑥을 피우지 않고 잘 따르는 순한 성격을 보고 ‘황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황순이는 신씨와 함께 살며 집안의 보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동안 15번 출산에 암수 8마리씩 모두 16마리의 새끼를 낳아 집안 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신씨의 4남매 교육 뒷바라지에 큰 힘이 됐다. 4남매 가운데 3명을 대학 졸업시키고, 그 중 2명을 호주

유학을 보내는 등 집안의 살림꾼 역할을 해냈다.

신씨의 밭은 경지정리가 된 논으로 둘러싸여 농기계를 이용할 형편이 안돼 황순이가 고령에도 매년 1ha의 넓은 밭을 갈아야 했다. 일반적으로 소의 수명은 평균 20년인데 황순이는 여느 소와 달리 발일을 하면서 영양 좋은 풀을 먹어서인지 건강하게 31년을 살았다.

그러나 3년 전부터는 먹어도 살이 빠지고 밭을 저는 등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지난달 중순부터 기력이 더욱 쇠약해지고 말았다. 동물병원에서 약을 먹이기도 했지만 끝내 지난 7일 눈을 감았다.

가족과 다름없었던 황순이를 위해 신씨는 집 앞 밭의 양지바른 곳을 파내고 황순이를 묻었다. 8일 간단한 제사도 치렀으며 매년 잊지않고 황순이의 ‘제사’까지 챙길 계획이다.

신씨는 “가족을 위해 그 긴 세월 묵묵히 일해준 황순이가 정말로 고맙다”며 “당분간 황순이를 잊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신안서 2.9 지진 발생

14일 오후 2시 47분께 신안군 남서쪽 31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 정보는 자동계 분석 결과로, 피해나 감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은 규모 3.0 이하일 경우 예민한 사람이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일 뿐, 별다른 피해는 없다”면서 “이런 지진은 평소에도 이어지는 자연 지진으로 일본 강진과도 관련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진은 울릉도 전남에서는 처음 발생했으며, 기상청 지진감시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60건의 지진이 발생, 최대 발생지 경북 지역 101건에 이어 두번째로 지진이 많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초교 회장선거 이번엔 어항 설치 공약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후보가 “콜팝을 쏘겠다”는 공약 때문에 당선 무효처리(광주일보 14일 8면)란데 이어 또 다른 초교에서는 회장 당선자가 “어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치러진 모 초교의 회장선거에서 180여표를 얻은 6학년 C(13)군 이 후보는 콜팝을 쏘겠다고 당선됐으나, 소견발표에서 “당선되면 금붕어 2마리를 넣은 어항을 각 반에 놓겠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정부패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열고 대응 방침 마련에 나서는 등 전전 금궁.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선외선 등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케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